

# 햄릿, 부재하는 현전, 그리고 깨달음: 『햄릿』 새로 읽기

이정호

## 1. 시작하는 말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햄릿』은 “[영]문학의 모나리자”(the Mona Lisa of [English] literature, Levin 4)라고 할만큼 그 해석이 쉽지 않은 작품에 속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의 해석이 이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희곡은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희곡이 이처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권 안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이다.

햄릿은 흔히 “최초의 현대인”(the first modern man, Siepmann 421)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독자와 관객들이 이 희곡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최초의 현대인으로서의 햄릿의 고뇌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고뇌의 원형(prototype)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희곡의 주제는 지금부터 몇 백년 전에 씌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이기보다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햄릿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당연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햄릿』 읽기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으며,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햄릿 문제’이다. 이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햄릿 왕의 유령이 말하는 클로디어스에 의한 자신의 독살이 의심의 여지 없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햄릿이 아버지의 복수를 왜 지연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한편으로 보면 아주 타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또 한편으로 볼 때 햄릿 문제는 단순한 복수 지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희곡의 주제를 이처럼 아버지의 독살에 대한 복수로 한정시킬 경우, 이것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햄릿이 이 회곡에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아주 커다란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있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당부가 아무리 지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그로 하여금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햄릿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햄릿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이제껏 가장 설득력 있는 복수 지연의 이유는 클로디어스가 자신이 행한 형의 독살을 인정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을 햄릿이 목격하는 순간 햄릿이 제시한 종교적인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클로디어스가 참회하는 때에 그를 죽일 경우 그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참다운 복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든 가장 큰 복수 지연의 이유가 된다. 이것 말고도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설명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프로이트는 햄릿의 복수 지연의 이유로 그가 어머니에 대해 무의식 속에 품고 있는 근친상간적인 욕정을 든다. '햄릿 문제'에 대한 이같은 설명들이 상당히 많은 정도의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 모델들은 이 회곡이 제기하고 있는 주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곡의 주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햄릿을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 위에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햄릿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필수 요건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햄릿이 이같은 신념을 얻는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가 아버지 유령을 대면하면서 당혹스럽게 직면하게 된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사실상 그는 아버지의 독살에 대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기 위해 대단한 고뇌를 하게 된다. 따라서 햄릿이 이 회곡의 전체를 통해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햄릿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 해답을 얻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햄릿의 고뇌를 살펴 보고 그가 다다른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읽기와는 다른 새로운 '햄릿 문제'의 또 다른 접근법이 될 것이다.

## 2. 부재의 현전으로서의 아버지 유령의 출현

이 희곡은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사실상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는 대단히 심오한 질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질문을 이 희곡 작곡이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이 철학이나 형이상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질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해야 하는가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짚어 보지 않고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죽음은 동전의 앞뒤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죽음과 삶의 이같이 밀접한 관계를 이 희곡은 짚고 있는 셈이다. 이 희곡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가 죽음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희곡에 많은 시체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죽음의 주제는 이 희곡의 처음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을 일으키면서 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은 햄릿 왕의 유령의 출현이다.

유령은 무엇인가? 이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할 경우, 이는 단지 현전의 흔적(trace of presence)일뿐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부재하는 현전(absent presenc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 햄릿에게 출현했다는 사실은 곧 부재하는 현전이 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유령은 햄릿에게 자기가 동생인 클로디어스에 의해 살해됐음을 알리고 이를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햄릿에게 있어 이러한 유령의 당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령으로 대표되는 부재하는 현전을 그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햄릿이 본 부재하는 현전은 단지 유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재하는 현전은 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햄릿이 여기서 본 것은 곧 부재하는 현전으로서의 죽음인 셈이다. 따라서 햄릿이 이 희곡의 처음에 대면하게 되는 것은 부재하는 현전으로서의 죽음이며, 이는 곧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나타난 셈이다. 그렇다면 햄릿에게 있어 아버지의 유령과의 대면은 곧 그가 '죽음'의 화두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희곡에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유령이 햄릿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나를 기억하라”(Remember me,

1.5.91)라고 말한 것은 그가 햄릿으로 하여금 그가 준 화두를 잊지 않고 간직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억은 무엇인가? 이는 단지 현전의 자취일뿐이다. 그렇다면 죽음이나 유령과 마찬가지로 기억 또한 부재하는 현전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 우리는 이같은 유령의 당부를 받고 이를 받아 들이는 햄릿의 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령이 이런 당부를 하고 떠나자, 햄릿은 유령이 한 “기억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 이 중 두 번은 유령이 한 말은 자신의 말로 바꿔 “당신을 기억하라고”(Remember thee, 1.5.95; 1.5.97)라고 말한다. 이는 유령이 한 말을 햄릿이 자신의 화두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 햄릿은 유령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나를 기억하라”(Adieu, adieu! remember me, 1.5.111)고 되뇌인다. 그 후 햄릿은 자신의 독백에서 기억(memory)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책에 기록(records, 1.5.99)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언급까지 하는 것을 보면 햄릿은 아버지로부터 ‘죽음’이라는 화두를 확실히 받은 셈이다. 따라서 이 회곡에 많은 ‘죽음’에 관련된 사건과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령으로부터 죽음의 화두를 받고 난 후, 햄릿은 유령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들로 하여금 클로디어스 앞에서 연극을 하도록 한다. 연극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연극(dumb show)이고 두 번째는 아주 사실적인 ‘곤자고의 살인’(*The Murder of Gonzago*)이라는 연극이다. 그렇다면 햄릿이 배우들로 하여금 같은 내용을 (형식은 다르지만)두 번이나 반복해서 공연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햄릿이 유령으로부터 받은 화두에 사로잡힌 나머지 강박신경증(obsessional neurosis)의 증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신경증(neurosis)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반복(repetition)인데, 햄릿이 배우들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연극을 두 번이나 반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신경증적인 증상이 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햄릿이 보이는 신경증의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죽음의 화두를 받은 후 그의 뇌리(무의식)는 죽음이라는 생각으로 꽂 차 있다. 이같은 그의 증상을 잘 드러낸 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로 시작되는 독백이다(3.1.55-88). 라캉은 신경증을 히스테리(hysteria)와 강박신경증(obsessional neurosis)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 신경증을 구별하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은 들고 있다.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성적체성(“나는 남자인가 또는 여자인가?”)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강박신경

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 즉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To be or not to be?)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Evans 123).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햄릿이 가지고 있는 이같은 죽음에 대한 화두는 곧 불교 수행에서의 관심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죽음을 최상의 가치인 적멸(寂滅, nirvana)로 승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햄릿은 아직도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죽음을 잠과 대비시키지만, 잠에서 꾸는 꿈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택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한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잠을 잔다면 아마 꿈을 꿀 것이다. 그렇다. 여기에 난점이 있다.  
우리는 생의 굴레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죽음의 잠 속으로 빠져 들었을 때 무슨 꿈을 꿀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이유이다.  
(이경식 213-4)

To die, to sleep —

To sleep, perchance to dream — ay,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3. 1. 63-68)

햄릿은 또한 죽음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죽음 —

어떤 나그네도  
아직 되돌아온 적이 없는 그 미지의 나라 — (이경식 214)

Death,

The undiscover'd country, from whose bourn  
No traveller returns (3.1.77-79)

이같은 햄릿의 독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아직도 죽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가치인 적멸로 보지 못하고 오직 두렵고 무서운 그 무엇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도 죽음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희곡은 따라서 햄릿이 이같은 죽음에 대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두려움 없이 견안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햄릿이 극중극을 반복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반복강박증(repetition compulsion, *Wiederholungszwang*)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리를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1920)에서 반복강박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반복강박증은 “주체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노출시키는 경향”(the tendency of the subject to expose himself again and again to distressing situations, Evans 164)을 말하는 것이다. 이같은 반복강박증은 죽음 욕동(death drive)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그러나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은 따로 따로 떨어진 욕동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어서 이들이 순수하게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죽음 욕동이 발견되는 것은 이것이 삶 욕동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라캉에 의하면, 죽음 욕동은 주체가 자신의 잃어버린 조화에 대한 향수, 상징계의 진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어머니 젖으로부터 떨어져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상징계에 진입하기 전의 어머니 젖가슴에 대한 회귀 욕망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이유로 라캉은 죽음 욕동을 나르시즘적인 자살 충동과 연계시킨다(Evans 32). 그렇다면 우리는 햄릿이 가지고 있는 반복강박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 유령의 출현으로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의 반복강박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반복강박증은 극중극을 두 번이나 연출하게 한다. 극은 그 성격상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햄릿 자신의 무의식의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이같은 무의식 속에는 또한 아버지의 유령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그가 상징계에서 겪는 정신적인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욕망 또한 잠재해 있다. 이같은 처지에 처한 햄릿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라는 독백에서 자살 충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복강박증이 보여주는 죽음 욕동의 실제인 셈이다.

아버지 유령의 출현으로 촉발된 이같은 햄릿의 반복강박증은 극중극의 반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곡에서 자주 쓰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난다. 햄릿이 어머니와 그녀의 침실에서 대화하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유령을 다시 본다. 이를 보고 햄릿이 어머니인 왕비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는 이같은 그의 반복강박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햄릿.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왕비. 전혀 아무것도. 하지만 내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햄릿. 아무 소리도 듣지 못 하십니까?

왕비. 아무 소리도. 우리 둘의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경식 244)

Hamlet: Do you see nothing there?

Queen: Nothing at all, yet all that is I see.

Hamlet: Nor did you nothing hear?

Queen: No, nothing but ourselves. (3. 4. 132-35)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햄릿은 무엇을 본 것인가? 그것은 <없는 있음>(absent presence)이다. 그러나 왕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녀는 햄릿이 본 <없는 있음>,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지 못함으로써 <없는 있음>(absent presence)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의 대화 후에 왕비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왕비. 이것은 너의 머리가 꾸며낸 것이다.

광증은 이와 같은 형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용하다고 하더라. (이경식 245)

Queen: This is the very coinage of your brain,

This bodiless creation ecstasy

Is vey cunning in. (3.4.137-9)

그렇다면 햄릿은 <없는 있음>뿐만 아니라 <없는 없음>까지도 모두 보는 눈을 가진 셈이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아버지의 유령이 이번에 햄릿에게 출현한 이유는 그가 햄릿에게 처음에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어머니에게 힘을 주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유령은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 absent)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something absent)을 가리키는 셈이다. 이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텅빔으로서의 없음(空, *sunyata*)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유령은 단지 아버지의 유령이라기보다는 햄릿에게 모든 것의 근원인 텅빔(空)을 내보이는 셈이다. 왕비가 이러한 텅빔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는 세상의 사물을 단지 유(有)와 무(無)로 단순하게 분류할 뿐, 그 뒤에 숨은 텅빔을 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유령의 잦은 출현과 그의 채근은 햄릿으로 하여금 죽음의 화두를 놓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 이제

햄릿은 차츰 차츰 텅빔으로서의 없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셈이다. 텅빔은 세상 만물의 있음(有)과 없음(無)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없음으로서의 텅빔은 단지 없음(無)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다. 데이비드 윌번(David Willbern)은 이같은 텅빔을 “공(空)/빔(虛)/부재(不在)/결핍(缺乏)” (Void/Vacancy/Absence/Lack, 252)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없음의 원초적인 장소”(the primary ground of nothing, 252)라고 본다. 이같은 없음의 원초적인 장소는 <“부정적인 없음”인 위협>(a threat [“negative nothing”]) 과 <“긍정적인 없음”으로서의 재창조의 가능성>(a potential for recreation [“positive nothing”], 252)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텅빔에서는 삶의 생명력과 공포의 대상인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셈이다. 윌번은 이것을 각각 “긍정적인 없음”과 “부정적인 없음”으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이트와 그의 이론을 재해석한 라캉이 자신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부정적인 없음”을 집중적으로 천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캉이 말하는 부재(absence), 결별(separation), 그리고 상실(loss)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없음의 핵심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라캉은 이러한 부정적인 없음을 “원초적인 <결핍>”(primordial *manque*, Willbern 25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결핍(lack), 구멍(hole), 결함(defect), 상처(wound)가 발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Willbern 250). 라캉은 “그것은 이것 또는 저것의 결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존재가 현전하게 되는 결핍이다”(It isn't the lack of this or that, but lack of being whereby the being exists, Seminar 223)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결핍의 존재(*manque à être*)로 보는 셈이다.

### 3. ‘햄릿 문제’의 문제성

『햄릿』을 연구 하는 비평가들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햄릿 문제’(Hamlet problem), 또는 ‘햄릿의 수수께끼’(the Mystery of Hamlet)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왜 햄릿이 복수를 지연하는가 하는 문제를 일컫는 말이다. 클로디어스가 극중극을 본 후 심한 죄책감을 느껴 기도하는 장면을 햄릿이 목격하게 된다. 클로디어스는 독백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죄과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 어떤 형태의 기도가  
내 입장에 맞을까? “저의 흉측한 살인을 용서해 주소서!”  
이건 안 되지. 나는 아직도



내 살인이 획득한 물건들인  
내 왕관, 내 야심, 또 내 왕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식 236-237)

My fault is past, but, O, what form of prayer  
Can serve my turn? "Forgive me my foul murder"?  
That cannot be, since I am still possess'd  
Of those effects for which I did the murder:  
My crown, mine own ambition, and my queen. (3.3.51-56)

이같은 고백은 유령이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말을 들은 햄릿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클로디어스를 죽이려고 칼을 빼든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일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저자는 지금 기도중이다. 이제 내 일을 결행하면  
그는 천당에 가고 나는 복수한다. 이 점은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경식 237)

Now might I do it [pat], now 'a is a-praying;  
And now I'll do't---and so 'a goes to heaven,  
And so am I [reveng'd]. That would be scann'd. (3.3.73-75)

이렇게하여 햄릿은 클로디어스를 죽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만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기도를 하고 있는 클로디어스를 죽일 경우,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당에 가지는 못 하더라도 연옥에는 갈 것이다.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연옥에 간 영혼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하고 난 후에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햄릿의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된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햄릿은 더 이상 좋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복수를 지연하면서 이 극의 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햄릿의 이같은 복수 지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위에서 본 햄릿의 첫 번째 복수 지연의 이유가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이같은 행동을 완전히 수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극작상의 문제로, 이쯤에서 클로디어스를 죽였을 경우, 이 극은 너무나 일찍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햄릿이 이 때 클로디어스를 죽일 경우 이는 참다운 복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수를 자행했다면 그는 아주 무모한 인물이 될 것이다. 햄릿이 여기서 복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은 이유로 우리는 햄릿의 독립적인 주체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아버지가 클로디어스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 아주 확실히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모하게 복수를 감행할 경우 그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명령을 아무런 여과나 비판없이 실행에 옮기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불식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이번 기회에 복수를 감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잘 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버지의 독살에 대한 햄릿의 복수 지연에 대해 아주 설득력있는 설명 중의 하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햄릿은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죽음의 화두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 유령은 그에게 또한 어머니를 해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바로 햄릿을 움작달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가 단순히 아버지의 살해에 대한 복수만을 부탁받았다면 그의 딜렘마는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와 더불어 어머니인 왕비를 해치지 말라는 당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중의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같은 아버지 유령의 당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햄릿이 그의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혹자는 이같은 말에 대단히 의아해 할 것이다. 햄릿이 어머니에게 욕정을 느끼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햄릿이 어머니에게 감히 근친상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프로이트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지는 이같은 근친상간적인 욕정은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소포클레스(Sophocles)가 쓴 『오이디푸스 왕』(*Oedipus Rex*)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이름을 따서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소유하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이미 써 놓은 『꿈의 해석』을 1900년에 맞춰 출판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20세기의 첫 해에 이 책을 발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은 19세기의 책이 아니라 20세기 문화를 바꾼 위대한 저술 목록에 오르게 된 것이다.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햄릿』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정신분석 이론으로 “최초의 현대인”인 햄릿의 정신을 분석했

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햄릿은 무엇이든지 하려면 할 수 있었다(중략) 다만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지위를 찬탈한 숙부를 복수하는 일만은 할 수 없었다. [이는] 숙부가 햄릿 자신이 어릴 적에 품고 있던 억압된 소망을 실현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햄릿을 복수로 치닫게 해야 할 역겨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결국 그 자신 또한 그가 벌해야 할 죄인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Hamlet is able to do anything ... except take vengeance on the man who did away with his father and took that father's place with his mother, the man who shows him the repressed wishes of his own childhood realized. Thus the loathing which should drive him on to revenge is replaced in him by self-reproaches, by scruples of conscience, which remind him that he himself is literally no better than the sinner he is to punish. (299)

그러나 햄릿의 경우, 이같은 욕망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와 다르다. 프로이트는 햄릿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의 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하나의 위대한 비극 작품인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소재는 같아도 그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문화적 시기에 있어서의 전적으로 다른 인간의 정신 생활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인간 생활에서 억압이 어떻게 진전됐나를 보여 준다 하겠다.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유아의 정신의 밑바탕을 이루는 소망 공상이 꿈에서나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햄릿』에서는 그것(소망 공상)은(중략) 신경증에서나 마찬가지로(중략) 억압되어 있어서 그것의 존재를 억압적인 결과로만 알 수 있다.

Another of the great creations of tragic poetry, Shakespeare's *Hamlet*, has its roots in the same soil as *Oedipus Rex*. But the changed treatment of the same material reveals the whole difference in the mental life of these two widely separated epochs of civilization: the secular advance of repression in the life of mankind. In the *Oedipus* the child's wishful fantasy that underlies it is brought into the open and realized as it would be in a dream. In *Hamlet* it remains repressed; and ... just as in the case of a neurosis ... we only learn of its existence from its inhibiting consequences. (298)

오이디푸스는 자신 스스로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지만 햄릿은 오이디푸스와는 달리 어머니와 결혼하지는 않는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이처럼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정을 공공연하게 실생활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면 햄릿은 이러한 욕정을 무의식 속에 억압한다는 사실이 다를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같은 것이다.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일 많이 대하게 되는 대타자(the Other)이다. 따라서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 가장 친밀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이같은 관계는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아는 성장해서 어머니 중심적인 세계가 아닌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세계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는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거울 단계(the mirror stage, 이는 또한 상상계(the Imaginary)라고도 부른다)를 지나 아버지의 법(the Law of the Father)이 지배하는 상징계(the Symbolic)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다. 어머니와 친밀하던 관계는 그의 마음 속에서 <대상 소문자 a> (*objet petit a*)라는 형태로 남게 된다. 이 <대상 소문자 a>는 라캉 자신이 프랑스어 이외의 어떤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되기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이 용어가 프랑스어에서만 가지는 신비스러움을 보존하고자 했다(Écrits xi).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햄릿이 놓여 있는 처지는 대단히 난처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어머니가 중심적이던 상상계를 떠나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의 법은 그에게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법으로 대표되는 상징계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잃었으며, 이처럼 와해된 상징계를 클로디어가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나타난 아버지의 유령은 단지 부재하는 현전(absent presence)일뿐 유령은 오히려 붕괴한 아버지의 이름만을 그에게 상기시켜 줄뿐이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햄릿에게는 어머니마저 클로디어스와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이같은 처지에서 햄릿은 오히려 더욱더 어머니를 원하고 있다. 햄릿이 이처럼 어머니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경지, 즉 무명(無明)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명 속에서 그는 더욱 더 어머니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그녀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게 된다. 햄릿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어머니 고착증(mother fix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어리(Peter Barry)는 어머니 고착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머니 고착증이라고 알려진 고전적인 증상은 [중략]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존경이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남성들은 어머니를 닮은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이 어머니를 닮은 여성에게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근친상간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성적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어머니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멸하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이들은 그들의 성적 상대의 체면을 훼손시켜야만 한다. 성적 대상인 여성들이 이처럼 훼손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어머니를 닮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러한 남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성들이 그들의 성적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여성은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모성형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부형으로 이분화된다.

[A] classic condition known as a mother fixation ... is an exaggerated reverence for the mother. Such people are attracted only to women who resemble the mother, but because of this the shadow of the incest taboo makes the expression of sexual feelings toward them difficult or impossible. Hence, their only way out is to seek sexual relationships with women who do not resemble the mother, and whom they therefore despise. So in order to generate sexual excitement such men have to degrade the love object, since if they are not so degraded they will resemble the mother, and hence, in the man's mind, not be available as a sexual partner. Thus, women are polarised into idealized maternal figures on the one hand and prostitute figures on the other. (Barry 108)

이같은 어머니에 대한 고착증이 햄릿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가 어머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재혼한, 그것도 자기를 버리고 정당하지 못하게 재혼한, 어머니를 원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그가 그녀에게 더욱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뿐, 그녀를 배척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다른 여자에게 치환하고(displace) 어머니를 더욱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햄릿과 오펜리어와의 관계를 이같은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고착돼 있으므로 아직도 어머니를

티없는 어머니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어머니의 불결한 면을 다른 여자에게 치환시킴으로써 어머니를 미화하고 싶어한다. 이같은 역학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햄릿이 오필리어를 것처럼 박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며, 그외의 다른 여자는 어머니의 불결한 이미지를 뒤집어 쓴 창녀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같은 햄릿의 생각은 그가 오필리어에게 “수녀원으로 가시오. 어째서 당신은 죄인을 낳는 사람이 되려 하오?” (Get thee [to] a nunn'ry,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3.1.120-121)라고 말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여기서 쓴 수녀원이라는 용어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사창굴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햄릿은 오필리어에게 어머니의 불결한 이미지를 치환한 셈이다. 그가 오필리어에게 왜 죄인을 낳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은 이에서 더 나아가 그녀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혼하게 되면 낳게 될 자식들까지도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햄릿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무의식 속에서 근친상간적인 욕정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어머니의 불결을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치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햄릿에게 있어 여성에 대한 욕정은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는 모든 고뇌의 근본이 되는 셈이다. 이는 그가 아직도 칠흑(漆黑)같은 무명(無明)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성에 대한 욕정은 모든 고뇌의 근본이 된다.

#### 4. 햄릿, 부재하는 현전과 대면하고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햄릿이 항상 그의 망부(亡父)가 그에게 준 죽음에 대한 화두를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뇌리는 죽음이 무엇이며, 삶이 어떠한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화두는 그를 따라 다닌다. 이같이 죽음에 대한 화두를 놓지 않고 있던 차에 공동묘지에서 그는 어릿광대 산역꾼들을 만난다. 이들은 무덤을 파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노래를 부르면서 산역일을 한다. 이를 본 햄릿은 어이가 없다는 듯 “무덤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이 친구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느끼지 못하는가?” (Has this fellow no feeling of his business? 'a sings in grave-making. 5.1.63-64)라고 말한다. 햄릿은 산역꾼이 해골을 집어 내동이치는 것을 보고 호레이쇼에게 이렇게 묻는다.

저 해골도 예전에는 혀가 달려 있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지. 저 친구가 해골을 땅바닥에 댄다 던지는군. 마치 그것이 최초의 살인을 감행한 카인의 턱뼈나 되듯이! 이 자가 지금 들어올렸던 대갈통은 어떤 책사(策士)의 것인지도 모르지. 하나님도 능가하는 책사의 머리 말일세.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경식 281)

That skull had a tongue in it, and could sing once. How the knave jowls it to the ground, as if 'twere Cain's jaw-bone, that did the first murder! This might be the pate of a politician, which this ass now o'erreaches, one that would circumvent God, might it not? (5.1.72-76)

그는 지체가 높던 사람도 죽어서는 구더기에게 먹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송장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 바로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구더기 마님이 되어 턱이 떨어져 나가고 대갈통은 무덤 파는 자의 삽으로 두들겨 맞고 있지.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운명의 수레바퀴의 묘한 변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뼈들은 구주회 놀이에 사용되는 외에는 키운 값도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려니 내 머리가 다 아프군. (이경식 281)

Why, e'en so, and now my Lady Worm's, chopless, and knock'd about the [mazzard] with a sexton's spade. Here's fine revolution, and we had the trick to see't. Did these bones cost no more the breeding, but to play at loggats with them? Mine ache to think on't. (5.1.83-87)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골은 햄릿과는 무관한 무명인의 것이 아니라 햄릿 자신도 잘 아는 궁정의 어릿 광대 요릭의 것이 아닌가? 햄릿은 요릭의 해골을 집어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뻘사, 가련한 요릭!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네. 호레이쇼. 무궁무진한 농의 익살꾼이며 굉장한 상상력의 인간이야. 그는 나를 수천 번이나 업어 주었네. 이제 이 일을 상상해 보니 몸서리 나는군. 이 일을 생각만 해도 위장이 뒤집혀 구역질 나네. 몇 번이나 내가 입을 맞추었는지조차 모르는 그의 입술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지. 좌중을 웃음 바다로 만들어 놓던 너의 그 농담, 익살, 노래, 변쩍이던 환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은 입 벌린 너 자신의 꼴을 비웃어댈 농담 하나도 없구나! 턱이 아주 떨어져 나갔군! 자, 해골아, 우리 귀부인 방에 가서 그녀에게 말하거라. 제 아무리 일 인치 정도로 두껍게 화장을 한다고 해도 이같은 모양으로 되어 버린다고. 그 말에 비웃으려면 맘껏 비웃으라고 하고. (이경식 285)

Alas, poor Yorick! I knew him, Horatio, a fellow of infinite jest, of most excellent fancy. He hath bore me on his back a thousand times, and now how abhor'd in my imagination it is! my gorge rises at it. Here hung those lips that I have kiss'd I know not how oft. Where be your gibes now, your gambols, your songs, your flashes of merriment, that were wont to set the table on a roar? Not one now to mock your own grinning — quite chop-fall'n. Now get you to my lady's chamber, and tell her, let her paint an inch thick, to this favor she must come; make her laugh at that. (5.1.173-182)

햄릿은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화두를 깨치고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햄릿이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호레이쇼와의 대화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알렉산더[대왕]는 죽었다. 알렉산더[대왕]는 매장되었다. 알렉산더[대왕]는 먼지로 돌아갔다. 먼지는 흙이다. 흙으로 우리는 진흙을 만든다. 따라서 알렉산더[대왕]의 변신인 진흙으로 사람들은 어째서 맥주통 마개를 만들 수 없겠나? (이경식 286)

Alexander died, Alexander was buried, Alexander returneth to dust, the dust is earth, of earth we make loam, and why of that loam whereto he was converted might they not stop a beer-barrel? (5.1.194-198)

이같은 햄릿의 깨달음은 굳이 어느 특정한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불교에서도 세상 만물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원소들은 윤회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깨달음에는 종교적인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서는 위대함과 깊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햄릿의 깨달음은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Sein zum Tode, 이기상 424)라고 본 하이데거(Heidegger)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가 동양의 도(道) 내지는 선(禪)과 만날 수 있는 지반이 있다”(험펠 9)는 험펠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또한 선적(禪的)인 깨달음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햄릿의 이같은 깨달음은 험펠이 말하는 <해방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험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해방의 행위란 불교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성(佛性)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깨달음을 경험



하고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바탕 웃게 된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기에 선(禪)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명상이 삶의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의 명상(즉 선정(禪定)) 속에서, 우리를 거둬 다시금 가상의 세계, 그릇된 욕망들의 세계, 아니 비진리의 세계 속으로 몰아매는 그 모든 이원론이 폐기되어 버리는 저 <텅 비어 있음>(sunyata), 마침내 저 무(無)가 경험된다. 그러나 그렇다면 또한 이같은 선(禪)의 길에서의 해방적 경험이란 오직 점진적인 의식 수행 [중략] 에 의해서만 체득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식 수행이 텅 비어 있음, 무, 무-관찰(Nicht-Schauen), 무-사유(Nicht-Denken)에로의 통찰의 이행, 다시 말해 <회상함>의 이행, 그리고 <회상하는 사유>라는 하이데거의 말과 여러 관점에서 매우 가까운 무-집착(Nicht-Haften)의 이행이다. (272-273)

그렇다면 햐릿이 요릭의 해골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햐릿이 이원론이 폐기되어 버린 저 텅 비어 있음(空)을 본 것이다. 텅 비어 있음은 삶과 죽음이 기원하는 원점(原點)이다. 그곳은 있음과 없음을 모두 아우르는 장(場)이다. 죽음이 부재하는 현전(absent presence)이고 삶이 현전하는 부재(present absence)라면,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양태는 텅 비어 있음에서 아무런 상충없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햐릿이 요릭의 해골에서 본 것은 바로 이같은 새로운 생명과 의식의 탄생인 셈이다. 그는 아버지 유령이 나타난 이후 그로부터 받은 죽음의 화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요릭의 해골을 만져 봄으로써 죽음의 화두를 깨친 것이다. 이같은 그의 깨달음은 단지 생각의 차원을 넘어 실행의 의지로 옮겨진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레어티즈와의 결투를 앞두고 그가 호레이쇼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데에도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네. 죽음이 이제 오면 장래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지 않는다면 장래에 올 것이다. 그것이 지금 안 온다고 해도 장래에는 꼭 올 것이다 —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네. (이경식 298)

There is special providence in the fall of a sparrow. If it be now, 'tis not to come; if it be not to come, it will be now; if it be not now, yet it will come — the readiness is all. (5.2.202-205)

그의 이같은 깨달음은 생사의 진리를 보게 만든다. 여기서 진리이란 형식논리적으로 정의되는 “지성과 사물 간의 일치”(adaequatio rei et intellectus, 햐펠 28)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이처럼 정의될 경우,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배제해 버린 비진리는 진리에 포함하지 못하는 이분법적이고 속좁은 사유의 속

박을 받기 때문이다. 햄릿이 본 진리는 회랍어로 알레테이아(*aletheia*)를 말하는 것이다. 알레테이아는 그 어원상 감추어진 것을 들춰낸다는 의미가 있다. 하이데거는 이를 비은폐성(*Unverborgenheit*)이라고 말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같은 진리로서의 비은폐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똑같이 무상한 것으로 본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같은 불교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한 목숨이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름이 생겨남 같고, 한 목숨이 스러짐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햄릿이 다다른 깨달음은 은폐되지 않은 진리로서의 삶과 죽음을 직시(直視)할 수 있는 능력인 셈이다. 따라서 햄릿은 삶과 죽음을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이원론적인 구별에 의해 본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이 같은 이분법을 떠나 그저 있는대로(如如) 본 셈이다. 이는 곧 그가 텅 빈(空)의 진리를 본 것이기도 하다.

## 5. 맺는 말

비평가들은 『햄릿』을 읽는 데 있어 햄릿의 복수 지연이라는 아주 좁은 테두리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그 결과 이 희곡의 더 큰 의미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햄릿의 죽은 아버지 유령의 출현은 햄릿에게 부재하는 현전(*absent presence*)이라는 화두를 그에게 안겨 준다. 햄릿은 이렇게 해서 얻은 화두를 가지고 이 희곡 전편을 통해 고뇌한다. 그 결과 그는 이 화두를 깨치고 삶과 죽음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텅 비어 있음을 보는 깨달음에 이른다. 이같은 『햄릿』 읽기는 이제까지의 읽기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고 이 희곡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읽기가 가능한 것은 20세기 철학의 거장인 하이데거와 선(禪)의 만남으로 가능하며, 또한 하이데거를 계승한 데리다의 이론으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읽기는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텍스트 읽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이경식(해설, 번역).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서울대출판부, 1996.  
 이기상, 구연상. 『「존재와 시간」용어 해설』. 서울: 까치, 1998.  
 험펠, 한스 페터(Hempel, Hans-Peter). 『하이데거와 선(禪)』. 이기상, 추기연 옮김. 서울: 민음사, 1995.

- Barry, Peter. *Beginning Theory: An Introduction to Literary and Cultural Theory*.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P, 1995.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Freud, Sigmun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r. James Strachey. New York: Avon Books, 1965.
- Lacan, Jacques. *Écrits: A Selection*. Tr.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1977. *Écrits*로 줄임.
- Lacan, Jacques. *The Seminar. Book II.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1954-55*. Tr. Sylvana Tomaselli. New York: Norton, 1988. *Seminar*로 줄임.
- Levin, Harry. *The Question of Hamlet*. London: Oxford UP, 1959.
- Schwartz, Murray M., and Coppelia Kahn, eds. *Representing Shakespeare: New Psychoanalytic Essays*. Johns Hopkins UP, 1980.
- Shakespeare, William. *Hamlet*. Ed. Susanne L. Wofford. Boston and New York: Bedford Books/St. Martin's Press, 1994.
- Siepmann, Katherine Baker, ed. *Benét's Reader's Encyclopedia*. 3rd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 Willbern, David. "Shakespeare's Nothing." In Murray M. Schwartz and Coppélia Kahn, pp. 244-263.